

완도군, ‘드론 아카데미’ 첫 교육 장애인 선정

신체 활동 자유롭지 못해도 일반인과 동일한 능력 발휘 이론·실기 등 총 3주간 진행...“장애인 자립 기회 되길”

완도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따라 새롭게 생성될 미래형 일자리에 대비하여 드론 조종사 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군은 ‘드론 아카데미’ 교육 첫 대상자로 장애인을 선정했다.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드론 조종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취업의 장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교육을 신청한 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 교육은 이론 교육 1주, 실기 교육 2주를 포함해

총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드론은 택배, 방재, 측지·교통량 조사, 재난 예방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드론 활용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며, “드론 아카데미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수강생은 “드론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수강료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격증 취득은 물론 꼭 취업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초로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신지명사 십리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드론 배달점 설치’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2년부터 완

도군의 낙도 주민들이 드론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23일에 열리는 2021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에도 드론을 활용한 방역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광양시 봉강면 6개 마을 제2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봉강면 내 6개 마을을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어르신이 살던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마을 공동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환자 1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광양읍 익신마을에 이어 올해 봉강면 6개 마을을 지정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치매안심관리사를 파견해 치매어르신에게 주 2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60세 이상 마을주민에게는 치매 조기검진과 매주 인지

강화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과 배회 인식표 배부, 안심팔찌와 배회 감지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화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과 배회 인식표 배부, 안심팔찌와 배회 감지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화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과 배회 인식표 배부, 안심팔찌와 배회 감지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화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과 배회 인식표 배부, 안심팔찌와 배회 감지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화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과 배회 인식표 배부, 안심팔찌와 배회 감지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화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과 배회 인식표 배부, 안심팔찌와 배회 감지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맥도날드, 중증 장애인 고용 앞장...올해 30명 신규채용

한국맥도날드는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기업문화 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이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 3분기 들어 장애인 직원을 15명 신규 채용했으며 올해 9월까지 장애인 직원 15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다른 기업에서 채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주로 채용하며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배정하기 위해 레스토랑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 시설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메인テナンス’ 직무를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 맥도날드에는 178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 장애인 직원의 약 4분의 1은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이다.

광주 화정1동 새마을문고, 내방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등 월 2회 운영



광주 서구 보건소는 화정1동 새마을문고에서 내방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지난 1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구치매안심센터와 치

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화정1동 새마을문고는 내방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등 치매예방교실을 월 2회 운영하게 된다.

김민정 기자

치매예방교실은 서구치매안심센터로 찾아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뇌 자극활동과 인지기능의 퇴화를 늦추는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스스로 치매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치매예방체조 등 다양한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서구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치매안심센터는 “고령화로 치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보다 쉽게 치매예방교실을 접할 수 있도록 치매극복 선도단체와 협약을 지속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학교·기업의 참여를 원하거나, 치매에 관한 상담은 서구 치매안심센터(☎ 350-4759, 4760)로 문의하면 된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